비트코인·금 동반 하락 점검과 토큰화 예금 상용화



박성제 선임연구원 ✉ parksj0321@shinhan.com

Brief Summary

- ✓ DBS·JP모건: 은행 간 토큰화 예금의 24시간 실시간 이체 서비스 상용화
- ✓ 비트코인 급락: 금리 인상 기대와 달러 강세 속 비트코인·금 동반 하락
- ✓ 추가 긴축 기조 재확인, ETF 수급 회복이 관건. BTC 6~6.2만달러 지지 여부 확인

주간 핵심 이슈: ① DBS·JP모건, 은행 간 토큰화 예금 실시간 이체 상용화

DBS와 JP모건은 미국과 싱가포르 간 달러 토큰화 예금을 24시간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서로 다른 은행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Ant International이 첫 고객으로 참여했다. 토큰화 예금의 활용 범위가 개별 은행 내부에서 국경 간 기업 자금관리로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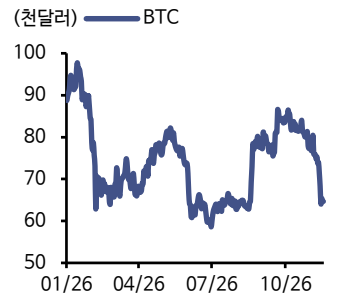
주간 핵심 이슈: ② 금리 인상 우려에 비트코인·금 동반 하락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확대되면서 비트코인은 6.2만달러 부근까지 하락했고 금 가격도 약세를 보였다. 달러 강세와 실질금리 상승이 두 자산에 공통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가운데, 현물 ETF 자금 유출과 Strategy의 MSCI 편출 우려가 비트코인의 낙폭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형 IPO를 앞둔 유동성 이동 역시 잠재적 부담으로 거론되지만 직접적인 매도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간 Preview: 금리 경로 재평가와 ETF 수급 개선 여부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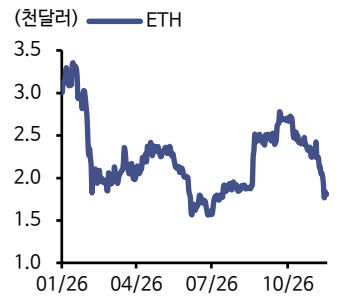
10월 FOMC 의사록에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재확인되고 일부 참석자가 빅스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의 반등 여건이 악화됐다. 달러 강세와 실질금리 상승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6~6.2만달러를 지지 구간, 6.5~6.8만달러를 저항 구간으로 판단한다.

비트코인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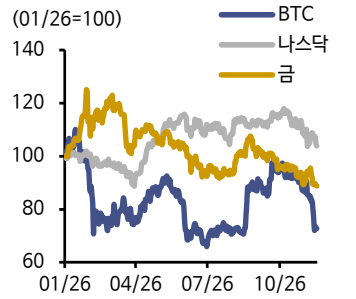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이더리움 가격 추이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주요 자산군 비교



자료: Bloomberg, LSEG, 신한투자증권

비트코인·금 동반 하락 점검과 토큰화 예금 상용화

글로벌 디지털 자산 뉴스 플로우

주간 주요 이벤트: ① DBS·JP모건, 은행 간 토큰화 예금 실시간 이체 상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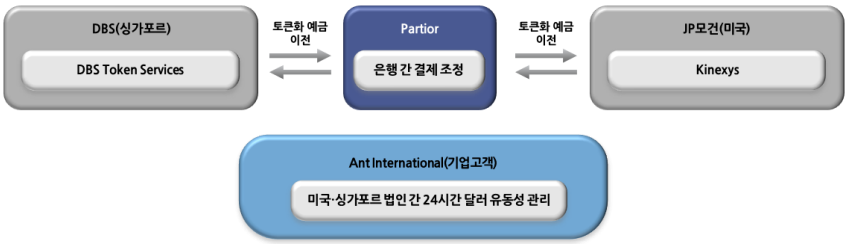
DBS와 JP모건의 토큰화 예금 연결은 은행별로 분리된 블록체인 결제망을 기업 자금관리 인프라로 통합하는 사례

DBS와 JP모건은 11월 16일 미국과 싱가포르의 은행 계좌 간 달러 토큰화 예금을 24시간 실시간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DBS Token Services와 JP모건의 Kinexys를 연결한 서비스이며 은행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기업의 달러 유동성 이전을 지원한다. Ant International이 첫 고객으로 참여해 양국 법인 간 자금관리에 활용된다. DBS에 따르면 아시아의 국경 간 송금액은 2025년 13.5조달러에서 2033년 24조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존 토큰화 예금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부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은행별로 원장과 계좌관리 체계가 분리돼 있어 개별 네트워크에서 구현한 실시간 결제 기능을 은행 간 거래로 확장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두 은행의 허가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Partior를 결제 조정 인프라로 활용해 이러한 제약을 완화했다. 토큰화 예금은 비은행 발행사의 준비자산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과 다르게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토큰화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번 사례는 토큰화 예금이 개별 은행의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기업 자금관리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관투자자와 다국적 기업은 기존 은행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경 간 유동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활용도가 높다. 토큰화 예금을 연결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별 블록체인의 처리속도가 아닌 은행 간 상호운용성과 기업고객 확보의 측면에서 투자 매력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실제 결제금액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참여은행과 거래규모의 확대 여부를 통해 상용화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DBS·JP모건의 토큰화 예금 이전 서비스를 통한 24시간 달러 자금 관리 구현 사례



자료: 신한투자증권

주간 주요 이벤트: ② 금리 인상 우려에 비트코인·금 동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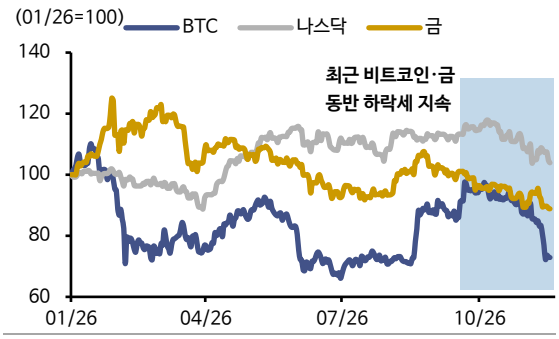
Binance 해킹 사태와 현물 ETF 자금 유출, Strategy의 MSCI 편출, 대형 IPO를 앞둔 매도세 등 다양한 악재들이 겹치며 비트코인 가격 하락. 다만 금 가격의 동반 하락 고려시 매크로 이슈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큼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가 확대되면서 최근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10월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1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96%까지 높아졌다. 시장은 2027년에도 추가적인 긴축이 이어질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달러 강세와 실질금리 상승이 비이자 자산의 투자 매력을 낮추고 있다.

비트코인과 금의 동반 하락은 이번 조정이 디지털자산 고유의 악재만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달러 유동성 위축이 두 자산에 공통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Binance 해킹 사태 이후 현물 ETF 자금 유출 지속, Strategy의 MSCI 편출이 낙폭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형 IPO를 앞둔 투자자금 이동 역시 추가적인 유동성 부담으로 거론되지만, 실제 비트코인 매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과거 SpaceX 상장 당시에도 상장 직전 비트코인 매도세가 지속된 점을 통해 일련의 악재들이 비트코인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이러한 외부적 충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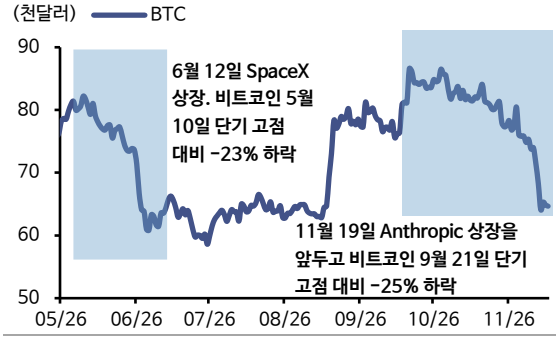
향후 비트코인의 반등 여부는 개별 악재의 해소보다 금리 인상 기대의 안정화에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12월 빅스텝 가능성과 2027년 정책금리 전망이 추가로 상향될 경우 비트코인과 금의 동반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 반대로 실질금리와 달러 강세가 진정되고 현물 ETF 수급이 회복된다면 비트코인의 반등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

11월 들어 비트코인과 나스닥, 금 모두 하락하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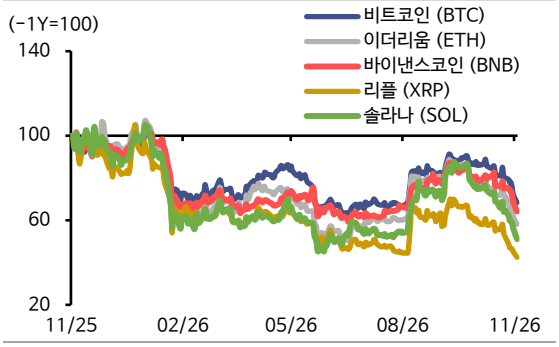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또다른 초대형 IPO를 앞두고 조정 받는 비트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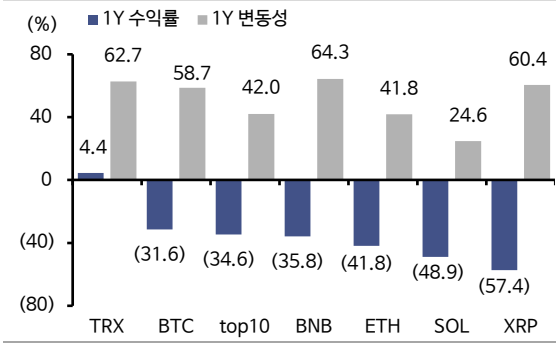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주요 디지털 자산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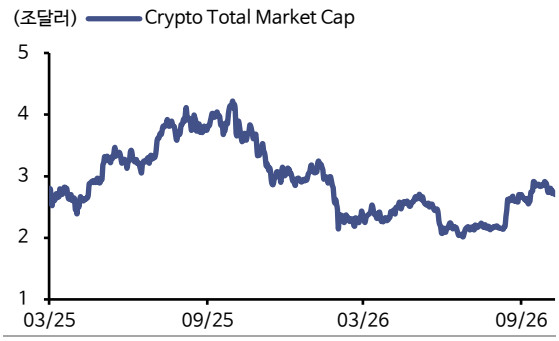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주요 디지털 자산 1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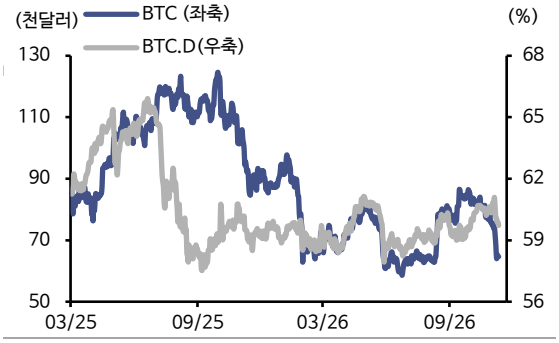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디지털 자산 전체 시가총액 2.18조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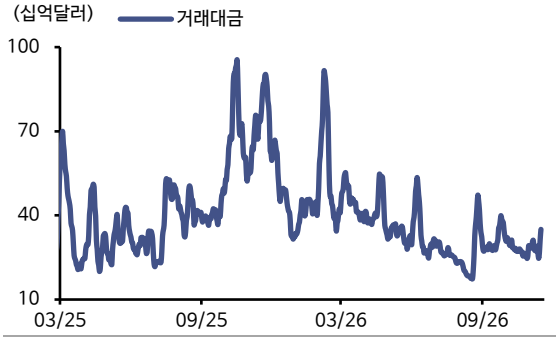
자료: TradingView, Binance, 신한투자증권

BTC.D는 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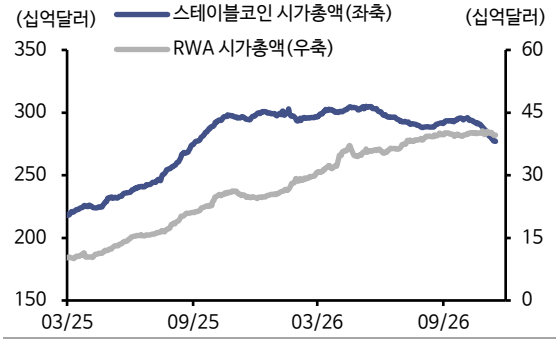
자료: TradingView, Binance, 신한투자증권

비트코인 거래대금은 최근 추세적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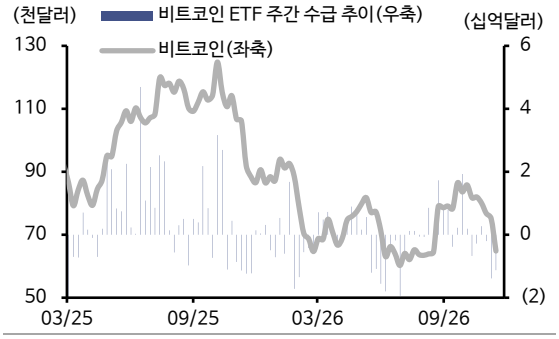
자료: Coingecko, 신한투자증권

스테이블코인 전체 시가총액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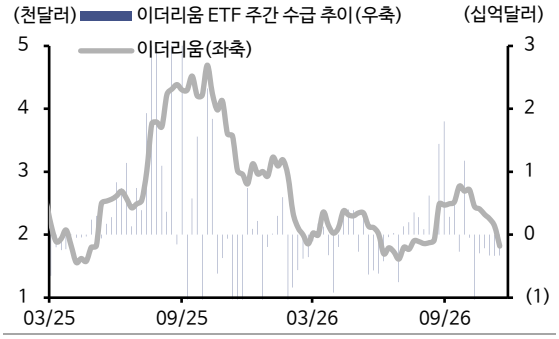
자료: rwa.xyz, 신한투자증권

BTC 현물 ETF 순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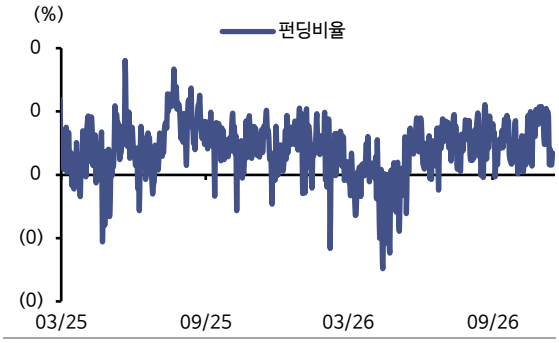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ETH 현물 ETF 순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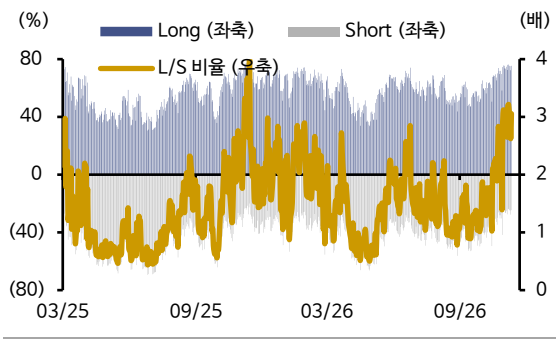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BTC 펀딩비율 0.03%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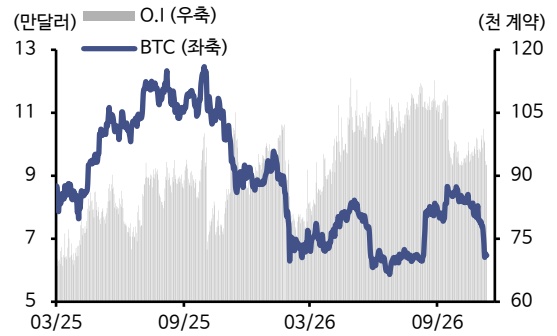
자료: Coinglass, 신한투자증권

BTC 롱/숏 비율 3.1로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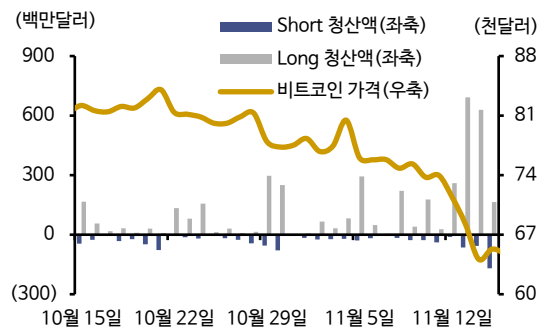
자료: TradingView, Binance, 신한투자증권

BTC OI는 최근 급락 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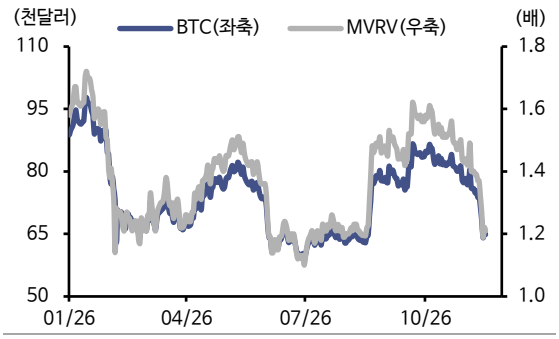
자료: TradingView, Binance, 신한투자증권

최근 30일 전체 시장 청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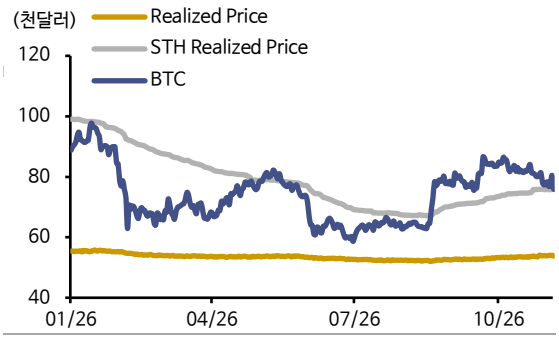
자료: Coinglass, 신한투자증권

BTC MVRV는 1.21배



자료: Coinglass, 신한투자증권

BTC STH Realized Price 74.2k



자료: Coinglass, 신한투자증권

주간 Preview: 금리 기대 안정과 ETF 수급 회복 확인 필요

10월 FOMC 의사록에서 추가 금리 인상 기조가 재확인됐으며, 일부 참석자는 12월 빅스텝 가능성도 언급. 비트코인은 6~6.2만달러 지지 여부를 확인하되, 금리 기대 안정과 ETF 수급 회복 전까지 보수적 대응이 적절

11월 18일 공개된 10월 FOMC 의사록에서 거의 모든 참석자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일부 참석자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12월 회의에서 25bp를 초과하는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준의 추가 긴축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달러 강세와 실질금리 상승이 비트코인과 금에 공통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12월 금리 인상 폭과 2027년 금리 경로의 추가 상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최근 6.2만달러 부근까지 하락한 이후에도 반등이 제한되고 있다. 현물 ETF의 자금 유출과 금리 인상 기대가 매수세 회복을 제약하는 가운데, 6~6.2만달러를 1차 지지 구간으로 판단한다. 해당 구간을 이탈할 경우 5.8만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반대로 금리 인상 기대가 안정되고 현물 ETF 자금이 연속 순유입으로 전환된다면 6.5만달러 회복과 6.8~7만달러 저항 구간 재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저점 매수보다 금리 기대의 변화와 ETF 수급 개선을 확인하는 대응이 적절하다.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성제).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